

- 충청남도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

의 정 토 론 회



충청남도의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충청남도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계획

목 적

- 충청남도 청년발전을 위하여 현재 청년정책을 진단해보고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코자 함.

I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0. 19.(화) 14:00 ~ 16:00
- 장 소 : 충남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충청남도의회(신청 : 기경위 조승만 의원)
- 주 제 :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제안 등
- 참석예정 : 약 3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온라인 생중계 참가자

<토론 참여자>

좌 장

-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자 (1명)

-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자 (3명)

- 정윤석 (홍성군청년회 이사장)
- 이정빈 (홍성군청년회 문화분과장)
-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사회 :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음.

II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등	사회자 :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14:05~14:15	10'	인사말씀, 내빈소개, 축하등	조승만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조승만 의원			
14:15~14:45	30'	주 제 발 표	·발제자 박춘섭 책임연구원
14:45~14:55	10'	휴식 및 단상 정리	
14:55~15:25	30'	지 정 토 론	·토론자 3명(각 10분)
15:25~15:55	30'	종 합 토 론	·발제자, 토론자 자유토론 및 마무리 발언
15:55~16:00	05'	마 무 리 및 폐 회	·좌 장(조승만 의원)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및 국민의례 : 14:00~14:05(05')

- 사 회 자 :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2

인사말씀, 내빈소개, 축하 등 : 14:05~14:15(10')

- 주요 내빈소개(조승만 의원)
 - 참석 도의원, 집행부 간부, 기타 내빈 등 소개 및 축하
 - 내빈 명단 파악 후, 조승만 의원에게 제공

※ 개회식 후 토론자 지정 좌석 착석

3 주제 발표 : 14:15~14:45(30')

- 박춘섭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 현 청년세대의 특징과 정책과제

4 지정 토론 : 14:55~15:25(30')

○ 발표 순서

※ 토론자 1명당 10분 정도 발표

정윤석 (홍성군청년회 이사장)	- 경쟁 그리고 청년
	
이정빈 (홍성군청년회 문화분과장)	- 지역청년 예술문화 발전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관하여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음.

5 종합 토론 : 15:25~15:55(30')

- 발제자, 토론자 간 자유토론 및 마무리 발언

6 정리 및 폐회 : 15:55~16:00(5')

- 진행자 마무리 발언 후 폐회

※ 토론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발제자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

목 차

■ 주제발표

- ☞ 현 청년세대의 특징과 정책과제
박춘섭(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 지정토론

- ☞ 경쟁 그리고 청년
정윤석(홍성군청년회 이사장) 23
- ☞ 지역에서의 청년 예술가로 살아가기
이정빈(홍성군청년회 문화분과장) 31
- ☞ 충청남도 청년정책 추진현황
안연순(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35

주제발표



현 청년세대의 특징과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춘 섭



청년세대의 특징 과 정책과제

2021. 10. 19.(화)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발표자: 박춘섭



Contents

- I . 청년세대에 대해서
- II . 청년정책 추진이유
- III . 정책과제 제안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 밀레니얼세대(Y세대)- 1981년~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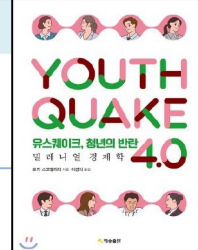
* (특징) 정보기술환경속에서 높은 교육을 받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 전달.

전세대의 경제번영이 보다 기술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일 것임(로키스코펠리티, 미래학자)

■ 경제적인 측면- 주요한 경제주체로 부상중

- 평균경제가치(AEV:예금+부채)- 15개국의 평균경제가치의 70%에 도달- 새로운 경제주체
- 그러나 부채 차지 비율(41%)로 시장평균 34%보다 높음
- 소득생산능력 25년 8조 3천억 달러(추정) 다른 세대(집단)을 따라잡을 것
- 2015년 현재 세계 재산의 10% 소유 추정, 세대간의 재산 이전(상속)에 따라 수혜자가 될 것
대상 :전세계 15개국 밀레니얼 6,078명 대상 설문조사
- 식료품소비(식당 지출 52%, vs X세대 41%, 베이비부머 33%)
- 이전세대보다 전자제품, 취미, 옷 등과 같은 생활물건에 돈을 더 지출한다
- 이전세대보다 신용한도 대비 높은 사용율

* 미국 신용카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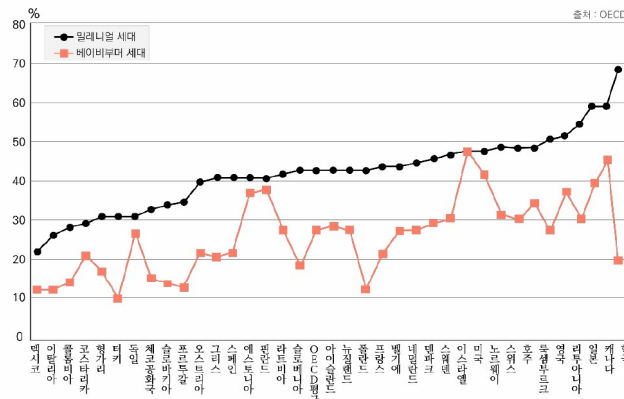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 경제적인 측면

- 이전세대(베이비부머)보다 고등교육(42%)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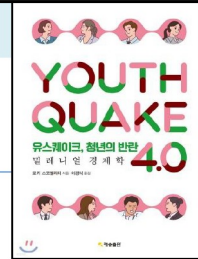


- 교육비 증가에 따른 부채 존재

미국 1조4천억 달러, 영국 1,000만파운드(2016), 한국 6조7천억원(2019*) 등

(* e-대학저널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73>)

* 청년 대출자중 57.3%는 소득이 상환기준 이하로 상환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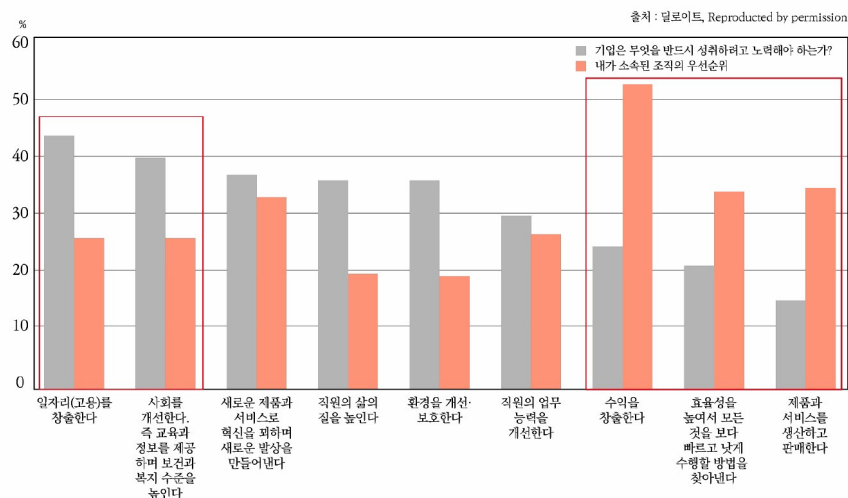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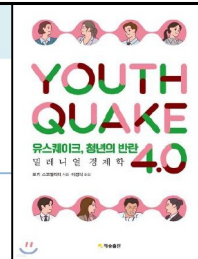
1. 오늘의 청년?

■ 기업관-기업가정신

- 제품서비스의 혁신적 발상, 일자리 창출, 생활개선이 중요



* 딜로이트 밀레니엄세대 보고서(2017)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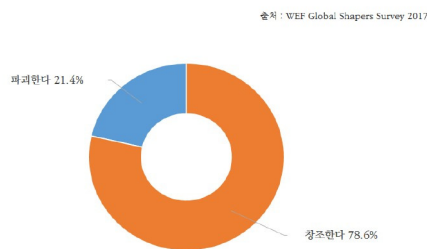
■ 기술관: 기대반 걱정반?

- 기술의 발달, 일자리를 뺏지 않고, 만든다(vs 부정적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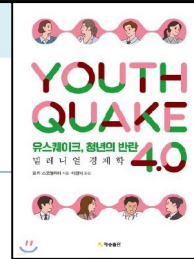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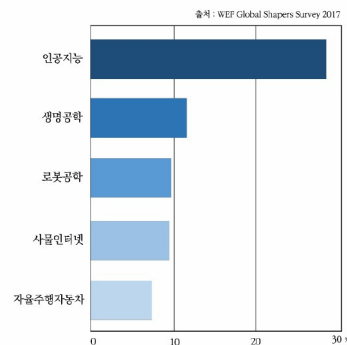
“밀레니얼은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기회로 생각”

-그럼에도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절감

“충분한 준비(36%) ... 유연노동 관행기업의 밀레니얼은 47%로 높음”



* 세계경제포럼(2017) (186개국, 18~35세, 3,1459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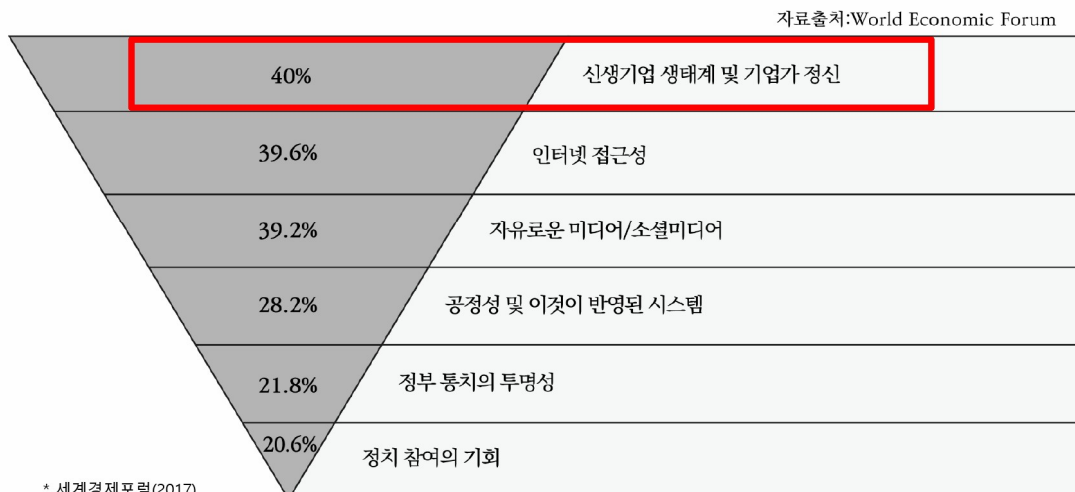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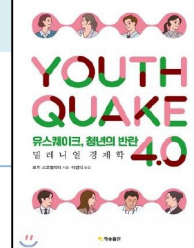
■ 정치 및 사회의식

- 세상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청년의 권한강화(empowerment)가 필요

*청년의권한강화를위한요인들:자신의창의성및기업가정신을표현할수있는방법



* 세계경제포럼(2017)



1. 청년세대에 대하여

2. 오늘의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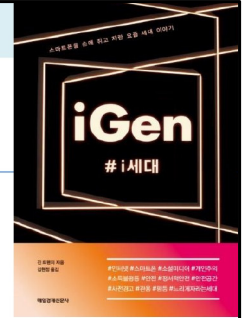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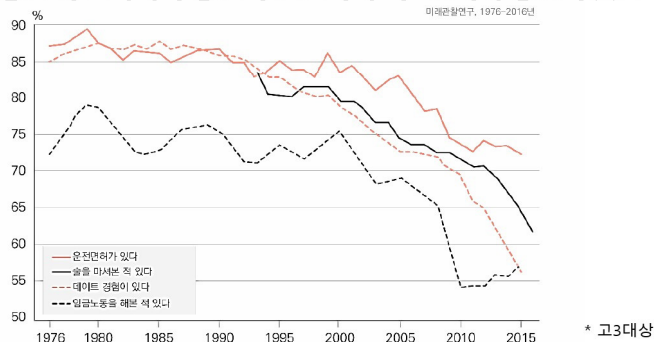
■ 세대(또는 Z세대)– 1995년(또는 1997)이후 태어난 인구층

* (개요) 인터넷(1995년) 생겨나는 등, 청소년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 (진트원지, 심리학자) 25년간 세대간 차이 연구, 2011년경 거대한 패턴의 변화 스마트폰 → 세대 탄생

■ 특징 1. 느리게 성장

- 부모와 외출 ↑, 성관계 ↓, 운전면허 ↓, 임금노동 ↓, 술 ↓
- 위의 활동은 유년기에서 성인기 전환기에 시도 세대 경험이 낮음 → 서두루지 않음?



1. 청년세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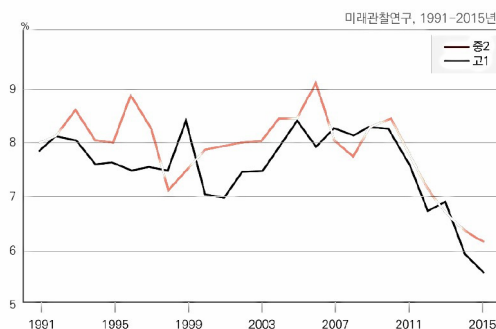
1. 오늘의 청년!

■ 특징 1. 느리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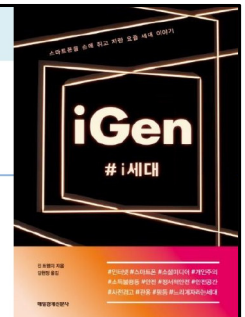
- 부모와 외출 ↑, 성관계 ↓, 운전면허 ↓, 임금노동 ↓, 술 ↓
- 위의 활동은 유년기에서 성인기 전환기에 시도 세대 경험이 낮음 → 서두루지 않음?

※ 생활사적 해석: 느린생활전략 (형제가 적고 집중 양육시기가 긴 경우 나타나는 현상) 채택!

VS 빠른 생활전략: 가족규모가 크고 부모가 생계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지난 12개월 동안 가출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중2와 고1 비율



1. 청년세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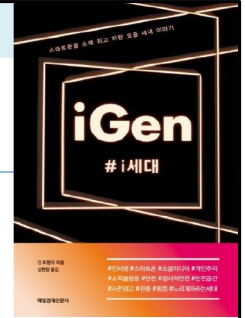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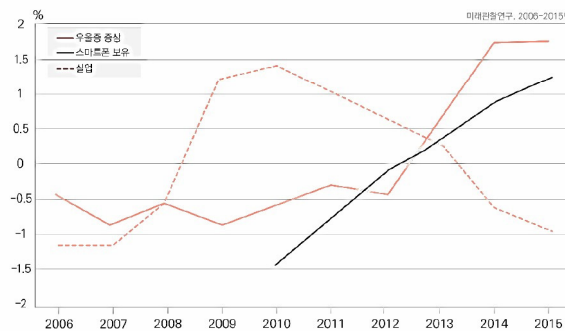
1. 오늘의 청년!

■ 특징 2. 스마트폰 네이티브

- 시간할애: 온라인과 메시지(이미지, 동영상) ↑, 책, 텔레비전 ↓
- 그러나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 우울증

“소셜 미디어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켜져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소셜미디어를 끄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기 매우어렵다”



1. 청년세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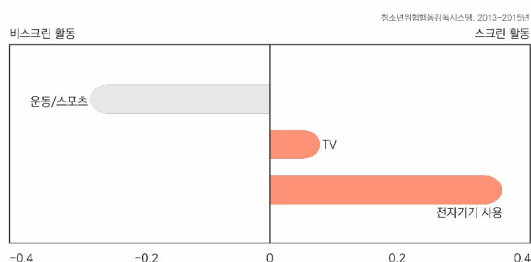
1. 오늘의 청년!

■ 특징 2. 스마트폰 네이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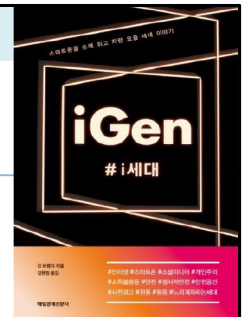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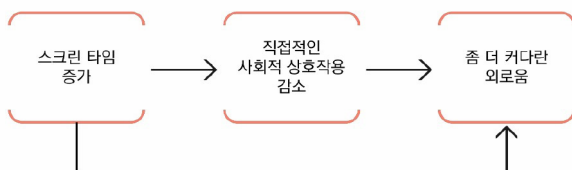
- 시간할애: 온라인과 메시지(이미지, 동영상) ↑, 책, 텔레비전 ↓
- 그러나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 우울증
- 세대는 이전 세대만큼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고 있다

“이따금 휴대전화는 우리를 외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 스크린 활동과 비스크린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기초한 한 개 이상의 자살위험 요인을 가지게 될 상대적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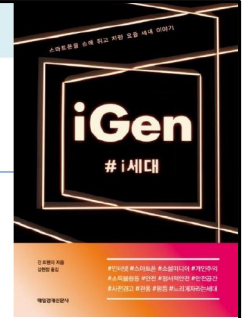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 특징 3. 안전한 삶 ↑ 사회적 참여 ↓

- 안전에 대한 우려 문화 속에 퍼져 있음
(카시트, 위생적인 놀이터 등 vs X세대 동네를 뛰어놀다?)
- 단순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적/사회적/정서적 위험 회피 → **마리화나, 흑업(원나잇), 안전공간 선호**

※ **안전공간**: 대학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사가 강연할때, 불편히 여기는 학생들이 모이는 별도 공간
원래,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 타인의 평가를 받게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같은 처지, 생각 학생이
모이는 공간으로 시작 → **불쾌한 관점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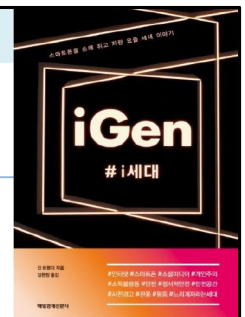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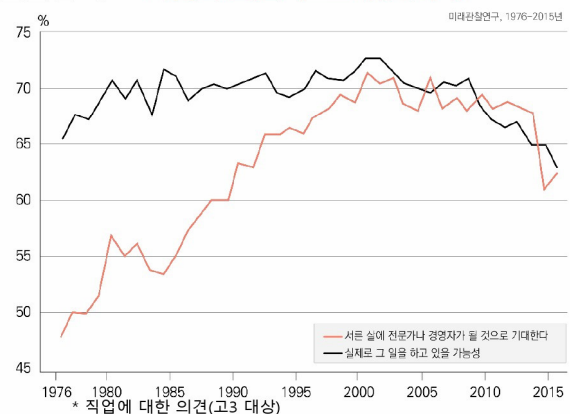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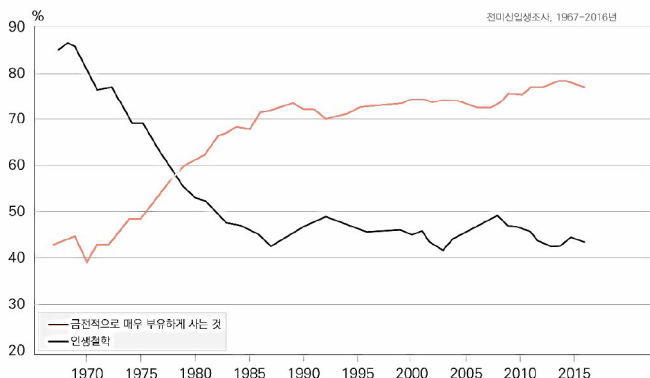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 특징 4. 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한다

- 세대는 실용적이고, 체계적 미래계획, 안전 지향적
- ※ **밀레니얼세대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꿈을 좇아야 해'**
- 소득 불평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두려워 하는 세대
- **기업가 정신의 약화**. 안정된 직장(군대, 경찰)에 대한 관심 증가 → **사업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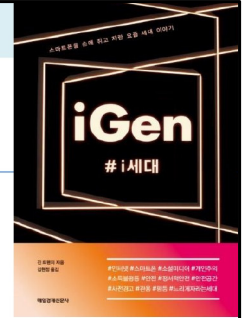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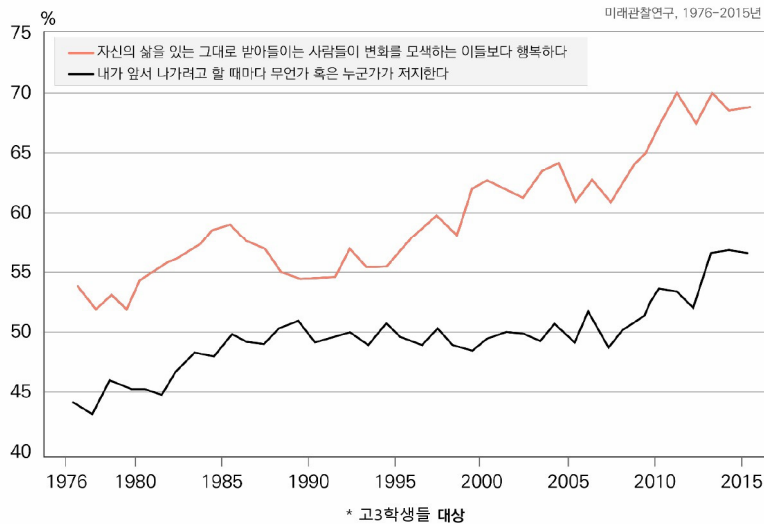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1. 오늘의 청년!

■ 특징 4. 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한다

※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잃어가고 있음. 외적 통제성 ↑



1. 청년세대에 대하여

3. 오늘의 청년

■ 일본, 사토리 세대

*(개요)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청년



- 우리나라의 N포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로, 높은 등록금과 취업 및 주거난 등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일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
- 일본에서는 정체된 경제성장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과 비정규직 근로 등의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포기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사토리 세대로 일컬음
- 사토리 세대는 부모세대가 누린 것을 포기하는 데 오는 우울함이 아닌 장래의 불확실함이 증가함에도 낙관적 태도와 행복감이 나타나는 청년 패러독스가 나타남(이순미, 2018)
- 이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패배감을 넘어선 자족하는 자세이며 이때 청년들이 행복감을 찾는 대상은 주로 친구 등 대인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청년세대로서 **일과 사회에 대한 성취와 기여를 통한 행복과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때** 어쩌면 청년들의 진정한 행복 * 으로 볼 수 있음

*(행복역량) 아마트리아센, 누스바움 등 행복은 재화의 풍족에서 벗어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다양함 여부

2. 청년정책 추진이유



2. 청년정책 추진이유

1. 일자리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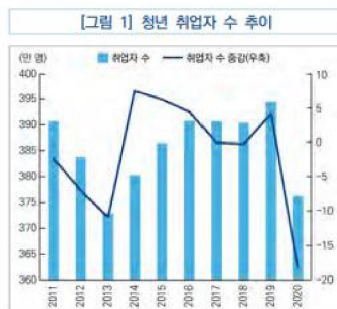
■ 2021년 4월 현재 청년실업률 10.0%(체감실업률 27%) 기록, 최고치 경신

* 체감실업률(취업애로충)이란, 사실상 실업상태이나 공식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 고용보조지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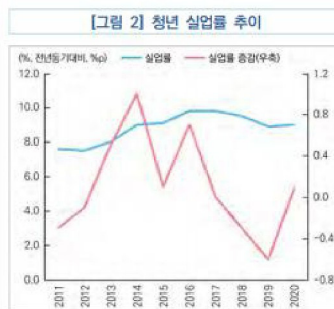
-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취업포기 및 기피자 양산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환위기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기록

- 청년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업(-3.0만명), 숙박음식업(-5.8만명), 교육서비스업(-3.0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노동연구원&이슈(2021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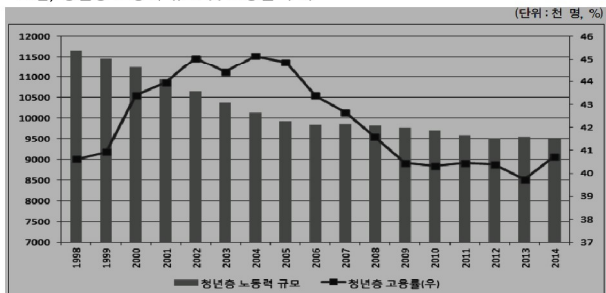
1. 일자리와 청년

■ 더 이상 경제성장으로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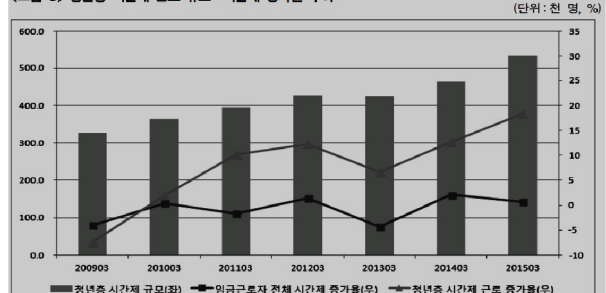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수요 감소
- 신규채용(청년일자리)보다는 경력채용 중시(1997년 6:3, 2001년 2:6)
- 괜찮은 일자리 수 감소, 저임금일자리 증가(약 30%, 중위임금 2/3), 비정규직 확산(2004년 이후 34~35%)

***노동의 유연화** 경제둔화/기업의 투자감소 해소 해법으로 등장. 고용불안 존재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생성으로 인한 취업기회 확대!! →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최초진입(프레카리아트(precariat))

그림) 청년층 노동력 규모 및 고용률 추이



(그림 3) 청년층 시간제 근로 규모 · 시간제 증가율 추이



자료 : 김복순(2015), '청년노동력과 일자리 변화', 노동리뷰 2015.10.

2. 청년정책 추진이유

1. 일자리와 청년

■ 현 청년일자리 쟁점

- ①학력과잉,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③미스매치, ④노동시장 이탈자(니트), ⑤단기적 일자리지원 한계
- 양질의 일자리창출, 선교육보다는 취업후 역량강화필요, 이행노동시장 관점 강화 필요(이규용, 2015)

■ 노동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한계직면

- 중앙정부 청년일자리창출(청년인턴제 등), 창업촉진, 해외취업 지원 등 140여 시책 추진중
-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은 수조원씩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는 심화되고 있음
-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전체의 문제로 공감필요

■ 청년창업?

- 창업기업(~39세)의 경우, 06년 20% 중반에서 최근 10%대 초반으로 낮아짐
- * 투자형 창업(21%)로 적고, 생계형 창업(60%)
-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의 경우, 미국의 1/3, 이스라엘의 1/6 수준

1. 일자리와 청년

NEET란 Not in Educations,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학생도, 취업자도 아니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청년을 뜻하며, 유류청년층이라는 표현도 씀

■ 청년니트 또는 유류청년층 확산우려

- 93.4만명(청년층 인구의 9.9%, 김종욱, 15~29세)
*156만명(청년층 인구의 18.9%, 김기현)
- 6개월이상 장기 비구직니트 46.8만명(전체 77%)
- 특히 졸업후 직업경험없는 비구직 니트의 증가



2. WHY 왜 청년정책을 해야 하는가?

“청년들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힘들어...”

- ◎ 사회적 부담 증가
- ◎ 사회적 창의성 후퇴
- ◎ 앞선 세대의 도덕적 책무

2. WHY 왜 청년정책을 해야 하는가?

■ 우리사회의 공동문제로서의 심각성(비용)

- 일본 청년니트 vs 청년노동자간 사회보장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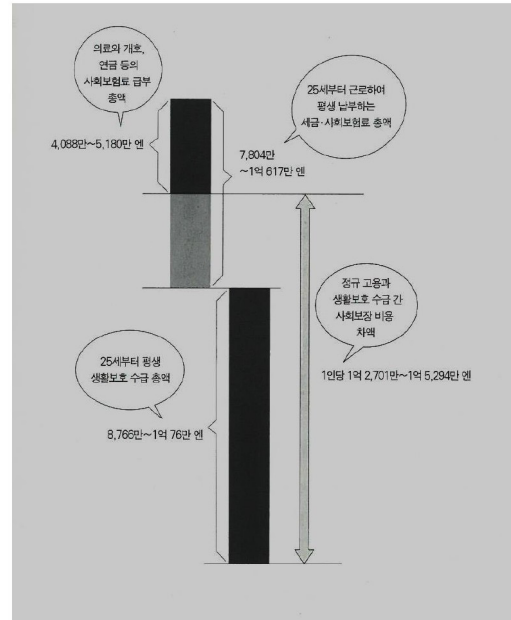
- 니트: 사회보장비용 1억엔 정도소요

- 노동자: 사회보장비용 5천만엔 정도소요

※ 노동자 사회보험료 납부8천만엔~1억엔

- 즉, 사회는 1명의 니트가 발생하면,

1억3천만엔~1억5천만엔의 부담을 떠 앉는 문제 발생



자료 : 구도 게이외 (2015) '무업사회' 169페이지

2. WHY 왜 청년정책을 해야 하는가?

■ 우리사회의 공동문제로서의 심각성(창의성)

- 설문조사: 적극적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자율, 안정, 영향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적극적 시민 유형의 경우, 청년세대(20대)가 가장 적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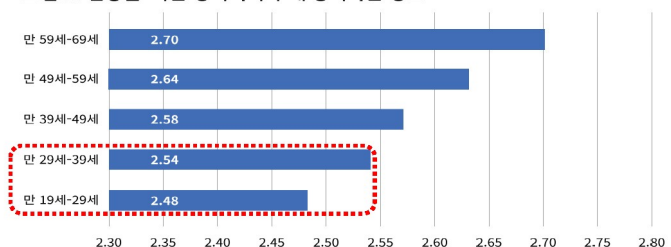
- 창의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20대(2.48), 30대(2.54)로 가장 낮고

-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26.8% vs 19.8%)' 을 꼽았음

“적극적시민성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이면서 이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공적인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

(최영준, 적극적시민성에 대한대국민인식조사보고서)

그림 3. 연령별 '나는 창의적이다'에 동의하는 정도*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4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

2. WHY 왜 청년정책을 해야 하는가?

■ 그리고, 앞선 세대로서의 책무(미안함...)

- 95년도 학부졸업
- 4학년2학기 시작할 무렵 학과사무실 기업원서들어옴
- 서류에서 탈락 거의 없음
- 사중은행을 가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너미쳤구나**라며 멀리
던 기억이 납니다
- 4년 평점 1.2 찍던 선배.. 대기업에서... 잘 자내고 있음
-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자금의 후배님들보다 능력이 좋을
라는 만무할 텐데.
- 그래도 대부분의 화사들은 잘 굴러갔고 들어간 사람들도 대
부분 별탈 없이 아직까지 잘 지내.
- “(후배님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
구나..”

IMF 이전의 화과 풍경

화과 소개

조희수 1974 조희수 988 최진희 9-1 1982 15

저는 95년도에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월배 있는 학부생 2명만 붙고 있었으니 까마득한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보통 2학기 시작할 때쯤 되면 학과사무실에 기업들이 배포하는 원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원서를 일단 구하여 어떤 기업이든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더라. 많은 학교에서는 저 원서 수령하기도 쉽지 않았습... 다만 서울대야 뭐...

일단 붙어서 원서를 읽고 사무실에 있는 학자한테 그냥 주르륵 넣어주었습니다. 특정 기업에 꼭 가겠다고 일지(8차) 생각하면 사람들은 오천오천 부지런히 문장능력하면서 체크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교에게 미리 문장수 한천과 더불어 부탁을 한 후에도 원서 구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원서를 구해서 매우 직접한 2명 걸렸음해서, 졸업예정자로서 문장 필요서류를 챙겨서 시간이 되면 붙어가는 마음으로 직접 가서 접수하러 갔다. 아니면 무명으로 접수하면 안. 원서 접수 후 몇일 후엔 면접 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생물의 경우 면접 전에 전화가 오어서 학과사무실 번호를 적어놔서 그 번호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한테 붙어볼거냐. 등기물을 찾아 알려주곤 했고) 면접 디딤돌은 거의 90%의 확률로 합격률 해서 몇군데 원서 내면 어디를 가이려나를 놓고 등기나 선택들과 상의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취업난? 그때만 안었습니... 학과문장집은 공짜로 주게 된다고 걸렸는데 걸리는 대상 대충 적당히 다들 안조. 20년에 못한 학과 문장과 선택이 서울문장배 거였다고 하니 취업에서 다른 '너 미쳤구나.' 하며 말한 기억도 납니다. 주저할수록 배 거려온 선배에게 다른 '대니' 사할까지 봐 가면서 왜 대견해 있는 그런 곳에 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형조.

거름은 줄었고 물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였다고 걸렸거라고 뒤늦게 하직했었다고 회사문장에 와서 '나는 원서 왜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요. 그러면 조교가 책상서랍을 뒤적거려다가 '했다. 0.15도 안가져가려해서 배알해 하나 남겨놔다'면서 던져주곤 했고, 4년 평점 1.2를 찍던 선배는 그날에 해서 급조해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1.5를 찍은 여자 불기도 알릴까 인사해서 가족일에서 근무했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학과생에서 문장원 신세 제복화살의 원서의 경우 누구의 선택도 못받고 걸렸거라고 얼마 뒤가 '나 백화점 물어라.' 하면 가볼까? 하면서 전이려나니 인사방들이 몇몇은 끝날 배이러 근무하러서 신봉이 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붙어간 사람들이 지금의 후배님들보다 능력이 좋을지는 만무할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화사들은 잘 굴러갔고, 붙어간 사람들도 대부분 별 탈없이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를 위해 전하던 노력들 해내고. 그렇게도 붙은 많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의르라는 문 장집에서는 살림에 인생도 합니다.

마침 반쯤에 물이려온 일 해...가 끝나 조금 한가한 시간이 걸렸어 지난구나..



자료 : 오박사 블로그

3. 정책과제



3. 정책과제

1. ALL 생애대응 전략(단편적 → 보편적)

■ 청년정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현 사회입문시기 청년보장 중심 → **ALL 청년생애보장 지역만들기**

■ 서울시 전략 → 대구시 전략

서울시 모델 : **이행기 청년 정책공백 매우는 사회안전망**



3. 정책과제

1. ALL 생애대응 전략(단편적 → 보편적)

■ 청년정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현 사회입문시기 청년보장 중심 → **ALL 생애보장 지역만들기**

■ 서울시 전략 → 대구시 전략

생애주기별 청년의 어려움 대응전략 제시

표 2 대구형 청년보장제 생애 이행단계별 주요내용

생애이행단계별 핵심계층	프로젝트	지원방향	지원정책(프로그램)
대학생 (교육기→사회진입기)	청년도전 프로젝트	• 대학생활동 지원, 취업준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대학생의 사회진입역량제고	• 글로벌인재양성 • 취/창업지원 • 대학생활동지원
취준생·알바·니트 (사회진입기→직업기)	청년희망 프로젝트	• 졸업생이 구직포기자 등 장기 니트(NEET)화 되지 않도록 사회진입활동 집중지원	• 대구형 청년수당 • 진로탐색 • 일경험 • 청년알바돌봄
취업·창업 청년 (직업기→안정기)	청년행복 프로젝트	•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창작 등 다양한 사회진입경로 지원과 결혼, 주거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자산형성 • 창업 및 창작 • 결혼 및 주거 • 예술가 지원
지역활동청년 (전주기)	청년자강 프로젝트	•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대구의 도시와 사회를 무대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 지원	• 공간조성 • 사회참여 • 지원기반강화 • 청년문화
출향청년 (전주기)	청년귀환 프로젝트	• 학습과 현장체험으로 대구청년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출향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홍보	• 대구청년 정체성 찾기 • 청년유입지원

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2020) 청년보장제 국내의 사례와 시사점

3. 정책과제

2. 청년창업도시 전략

■ 청년일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근접지원 ★ 선호일자리 → **청년선호 기반 취, 창업도시 만들기**

■ 청년일자리 접근법 전환

방향 1. 청년선호기업의 유채워케이션 결합)



자료: 잔구리아, 대학생 취업희망산업 조사표

자료: <https://news.nate.com/view/20140407n07652>
https://www.homes.co.kr/cont/press/cont/cont_00382/www.schita-lab.co/special/637/

3. 정책과제

2. 청년창업도시 전략

■ 청년일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근접지원 ★ 선호일자리 → **청년선호 기반 취, 창업도시 만들기**

■ 청년일자리 접근법 전환

방향 2. 컨설팅기관

남부지역 강화 필요

사업명	위치
청년일자리 허브Y+센터	-천안(호서대)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아산(충남창조혁신센터)
충남형 디지털 뉴딜일자리 청년키움	-예산(충남일자리진흥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천안(순천향대학교), (공주)공주대학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창업마루 나비)	-천안
웹툰창작체험관	-천안(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아산(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아산(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VR/AR 제작거점센터	-아산(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천안(6), 아산(3), 당진(1), 태안(1), 금산(1), 논산(1), 공주(1), 홍성(1) 대학내 위치
충남노동권익센터	-홍성
123사비 청년창작 클러스터	-부여
음악창작소	-천안(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천안
청년LAB조성	-금산(1), 서산(1), 청양(1)

3. 정책과제

3. 청년 뿌리내림 전략

■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떠나지 않게 하기 ★ 찾아오게 하기 → 매력있는 도시만들기

■ M세대: 모험/사회성/창업가 세대: 안전/안정성/취직

- 방향 1. 전출인구 줄이기
- 타겟: **충남이 고향인 청년**
- 키워드: 잘 알고 있는 고향에서 살기
- 실험사업: U턴청년지원단, 애향 교육환경(👉**아무도 모르더라~**), 지역인재 장학금(👉**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을 지원**)
- 방향 2 전입인구 늘리기
- 타겟: **대안적 삶을 꿈꾸는 청년**
- 키워드: 새로운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업을 얻기
- 실험사업: 마을청년창업단, 대안적 교육환경, 충남마을펀드(마을주식)

3. 정책과제

@. 참고사례

■ U턴청년지원단

-U턴청년 적극 자원(취업/주거 등)

ふるさと暮らしセミナー
地方での暮らしや働き方を、東京・有楽町で探そう

※参加費無料
※先着予約制となっております。定員は各回のトピックスよりご確認ください。

開催日時	テーマ	講師	会場
2021/09/15(水) 13:00-15:00	【オンライン】 広島の外食市場を知り尽くしたプロが語る〜広島高橋家で得る見えるべき3つのポイント〜	高橋 孝一	オンライン
2021/09/17(金) 13:00-15:00	【オンライン】 移住女子トークライブ (移住が私の分岐点) 瀬田園遊会移住セミナー	瀬田 園遊会	オンライン
2021/09/17(金) 15:00-17:00	【オンライン】 ええとこやんか二重移住セミナー〜みえde 結果して暮らす〜	みえde 結果して暮らす	オンライン
2021/09/18(土) 13:00-15:00	【オンライン】 第4回福岡市オンライン移住相談会	福岡市	オンライン
2021/09/18(土) 15:00-17:00	【オンライン】 おおいた健康・就業フェアにおおいに暮らし	おおいた健康・就業フェア	オンライン
2021/09/18(土) 17:00-19:00	【オンライン】 くらしまで暮らし移住相談会 瀬戸内x白民	瀬戸内x白民	オンライン

セミナー検索
うらなひのセミナー

エリアから探す
北海道・東北 中部 北陸 関東 中部 近畿 中国 四国 九州



- 와세다 대학교 커리어센터
- <https://www.waseda.jp/inst/career>

- NPO법인 고향회귀지원센터
- <https://www.furusatokaiki.net/>

3. 정책과제

@. 참고사례

■ 애향 교육환경 만들기

- 마니와시, 마니와생업학교(真庭なりわい塾)



第5期真庭なりわい塾カリキュラム

入塾式 先輩の話を聞く	8月
地域に・リターンした先輩たちの生き方、働き方について学びます。塾生一人ひとりの夢や目標を語り合うワークショップを行います。	
集落をあぐる・みる・きく	9月
グループごとに、地元の人と一緒に歩いて、見て回りながら、日々の暮らしの積み重ねや集落ごとの成り立ちを学んでいます。	
地域の産業と暮らし～食と農～	10月
昔の暮らしを知るお茶会、食の文化や日々の農作業について聞き取りをします。時給のための「農」と、産業の「農業」の違いも学びます。	
地域のお年寄りに話を聞く	11月
戦争を経験し、戦後の復興や高度経済成長を生き抜いてきた、ご高齢の方の人生を聞き書きし、想いと歴史を学びます。	
地域の産業と暮らし～林業とバイオマス～	12月
森は、私たちの暮らしにさまざまな恵みを与えてくれます。林業の現状や、森と人の暮らしのつながりをトータルに学びます。	
地域のコミュニティと自治	1月
地域には、さまざまな祭り行事や共同作業があります。教育や福祉も学びながら、地域単位の自治の大切さを考えます。	
農山村の未来を考える～地域と経済～	2月
グローバル経済と地域経済に関する総論講義と、塾生一人ひとりが自身の夢や理想、持続可能なライフスタイルを考えていきます。	
卒業式～自分でみつめる「豊かさ」と「幸せ」の基準～	3月
「X年後のわたし」と題して、これからの生き方・働き方を塾生が発表します。約半年間の講座で学んだことの集大成です。	
実践講座 参加は任意	2年間
登山資源の活用や農産物産地の実践、特産品開発、空き家活用など希望に応じて複数のプロジェクトに分かれ、実践形式で学びます。	

3. 정책과제

@. 참고사례

岡山県真庭市 地域おこし協力隊募集中！

■ 마을청년창업단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최장3년 보수, 주거지 지원



• 마니와시 지역부흥협력대
페이스북

令和2年度 真庭市地域おこし協力隊 募集

真庭市地域おこし協力隊が取り組む多様な
協力隊 × 地域課題

真庭市地域おこし協力隊は個人の能力やスキルを活かし、地域・行政・協力隊 OROG 等と「連携による公益的な活動」を行い、様々な課題に取り組みしてきました。私たちは持続可能な地域を目指し、ともに活動して人材を募集しています。

協力隊 × 廃校利活用
→ 廃校を活動の拠点として活用し、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アクティビティ
→ 地域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様々な活動を行います。例えば、地域の魅力を発信するための活動や、地域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活動などです。

協力隊 ×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 日本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を活用し、地域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空き家
→ 空き家の活用、空き家の活用による地域の活性化、空き家の活用による地域の課題の解決などを行います。

協力隊 × イベント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ジビエ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特産品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教育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農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デザイン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協力隊 × 起業
→ 地域の活性化や、高齢者の生活支援、子育て支援、防災対策などの活動を行います。

詳しくは、真庭市 地域おこし協力隊 募集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QRコードは募集ページからもご覧いただけます。

協力隊の令和2年度 H2021
真庭市地域おこし協力隊
公式 Facebook

• 마니와시 홈페이지
• <https://www.city.maniwa.lg.jp/soshiki/4/22873.html>

3. 정책과제

@. 참고사례

■ 대안적 교육환경

- 일본 나가정, '차일드 홈'
- : 육아맘 커뮤니티 x 맘치유 x 뛰노는공간



3. 정책과제

@. 참고사례

■ 충남마을펀드(마을주식)

- 커뮤니티 셰어- 지역자산취득을 위한 커뮤니티 주식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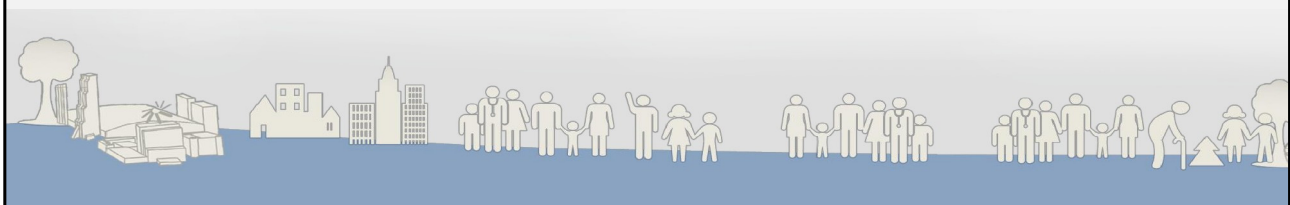
Chase Community Solar
Target = £950,000
Raised = £782,500
Members = 188

Portpatrick Harbour
Target = £75,000
Raised = £103,395
Members = 363



Benenden's Community Shop
Target = £60,000
Raised = £70,380
Members = >300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1



경쟁 그리고 청년

홍성군청년회 이사장
정 윤 석



경쟁 그리고 청년

홍성군 청년회 이사장 정윤석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청년회 이사장 정윤석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 홍성군 청년회를 초대해주시고, 청년들에게 토론이라는
기회의 장을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혁의 바람에 참여해주시고 계신 기관과 청년분 둘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회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청년회는 봉사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제 신
생아 단계를 벗어나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명망 있는 중년 선배님들에게 격
려 받으며 자라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하는 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 정책이 현재 너무 즉흥적이다....

- 선거철만 되면 청년 정책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청년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만18세~34) 연 1.2% 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 1억 기간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중소기업재직 중이며 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
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 신청 가능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다.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만18세~34세) 이하의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지

원할 수 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4만 원) 여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즉시 결제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알선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취업한 청년들에 한 정책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운영 청년, 기업·정부 공동 공제금 적립 2~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예 2년간 일하면 300 납부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지원해 총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 (중위소득 20% 이상)이라면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근로 소득장려금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KEB 하나은행에서 만든 저축상품 생계 수급 청년 (만15세~34세) 중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일 경우 3년 만기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 소득공제금 10만 원 지급하고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월 소득 81만 원 기준으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 만약 저축을 더 하면 최대 연 3.3%의 이율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만19세~34세, 병역기간 6년 인정)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율이 연 3.3%이며,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3년 내 가구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연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이며 기존 청약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도 요건이 된다면 신규 전환으로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본격

시행되는 첫 기본소득제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 약 17만 5,000명 모두에게 최대 연 100만 원을 제공한다. 구직활동 증명, 자격심사 같은 조건도 없다. 서울시는 19세~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넘은 사람에게 청년수당을 제공하는데 중위소득의 150% 미만 가구 구성원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제공하지만, 신청서류를 심사해 4,000명 내외에게만 지급한다....

저는 위 정책들을 보면서 어느 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50%	2,741,747	4,632,119	5,975,525	7,314,435	8,636,060	9,942,905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72%	1,316,038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52%	950,47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단위 : 원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경쟁 속에서 취업이 됐다 하여도 그 지역에 연고가 없다면 주거할 곳을 마련해야 하고 안 그래도 첫 취업으로 많은 경제적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는 생각도 못 할 것이고 높은 월세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저축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으로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하기엔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의 푸른 꿈들은 또다시 청년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에 갇히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서류 심사에서 배제되어 4000명에 들

어가지 못했을 때의 절망감을 한번 맛본 청년이 또다시 청년 정책에 관심을 둘 것인가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의사소통을 했는지? 청년 정책을 만들며 몇 명의 청년이 참가하고 조사했는지?

그리고 차후 개선 방안? 사라진 정책의 실패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졌다가, 꽃도 못 피우고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홍성군 청년회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라 당신은 청년이니까

본 토론회에서 청년 정책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라지지 말고 개선하고 조사하라…. 청년처럼 발전하고 성공하라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소통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청년에게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각 행정 주무관님들께서는 모든 부분을 행정 화해야 하며 서면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년들이 놓인 실태를 조사하거나 인터뷰하는 작업의 업무량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점을 현장에서 느낄 방법과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심문고**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펼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정책 제안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있는 어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관심에서 나옵니다. 현재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선거 시 청년들의 선거 참가율에 대해서 미비하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청년이 미래인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무엇을 진행했고 어떠한 것을 진행하고 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슨 혜택으로 돌아갔는지도 정치인 여러분들이 모든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도록 만들 것이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책과 정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책이 지속할 수 있으면 한 단계 성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청년이 사회에 첫발자국을 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신규채용이 아닌 경력자를 채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년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업이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더불어 청년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성은 충절과 교육의 도시입니다.

산학연이 서로 혁신하고 협업한다면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것입니다.

- 저는 고등교육 과정 대학과정에서 학교를 떠나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 이와 같은 청년 정책이 존재했고. 지금 청소년 시기에 앞으로 청년이 될 우리가
- 정책이라는 것을 익히고 또한 배움으로써 어떤 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관심을 둔다면
- 시대에 맞는 안정적인 청년 정책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정책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얼마 전에 서울 송파구에서 모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양주시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자살한 사건, 그리고 탈북자 모자 아사 추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왜 그랬을까요?
- 그리고 이분들은 왜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은 지식 부족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청년 정책도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면, 홍보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청년 정책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꼭 챙겨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08시 40분 홍성의 지역방송시간에 가구백화점 광고가 텔레비전에

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생각이 그날의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각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청년 정책이 진행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대형미디어인 텔레비전에 지속해서 노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떡일지언정 나의 접시에 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정보를 집합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은 청년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 홍보에 신경 써주셔서 수많은 청년 정책이 단순히 사용하지 못하는 청년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홍성군 청년회도 위 3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2



지역에서의 청년 예술가로 살아가기

홍성군청년회 문화분과장
이 정 빈



지역에서의 청년 예술가로 살아가기

홍성군 청년회 문화예술 분과장 이정빈
(창작집단 나빌레라 대표)

안녕하십니까 청운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홍성지역에서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협동조합 나빌레라 라는 예술단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역에서의 청년예술가입니다. 홍성에 남게 된 이유는 좋으신 선배들의 권유 그리고 지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한번 남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나빌레라 라는 청년예술단체를 만들었고 저희처럼 젊은 청년들이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작환경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단체대표 인 저부터가 먹고살기 힘들었습니다. 공연, 예술교육 등등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제안을 넣어 보기도 하고 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술창업이나 모든 창업들은 2~3년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단체 또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지자체 및 재단 공모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모사업들은 모든 지역들이 기본으로 다 가지고 지원사업들이었고 오히려 광역시, 큰 도시 들이 더 다양한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충남으로 보면 청년농업분야는 21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 예술가지원사업 4개 그중 실질적인 예술을 지원해주는 사업 1개 1년에 최대 380만원. 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왜 홍성에 남은거야? 물어보면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앞의 어른들이 말 한 것처럼 지역이 기회의 땅이야. 이 한마디뿐. 사실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대감으로 나빌레라는 현재 청년예술가들의 사비를 모아 홍성에서 소극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자 한 이유는 충남이 청년들이 살기 좋

은 곳으로 만들려면 청년예술가의 영역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농업 같은 한 분야만 지원할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균등하게 성장하고 지원받아야 서로의 시너지 그리고 청년예술가로 인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년예술가들과 소통하여 충남하면 청년예술가들이 살기 좋은 곳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정토론 3



충청남도 청년정책 추진현황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안 연 순



충청남도 청년정책 추진현황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I. 서론

충청남도는 청년고용 악화, 청년인구 유출·감소 등 청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담부서가 필요한 실정을 감안, 2020년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청년 나이를(기존 18~34세)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 및 충남 청년의 날 제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행·재정적 청년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실태파악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 74개 과제에 98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74개 과제 >

분야	과제수(개)	예산(억원)	주요사업
총계	74	989	
일자리	34	47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주거	5	328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
교육	7	35	인공지능 등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복지문화	12	137	청년희망계좌(통장),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등
참여권리	16	18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 마을만들기 등

Ⅱ. 분야별 추진실적

1. 일자리

충남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9개 사업에 392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1,8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1대)와 취·창업카페(6개소)를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농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부를 육성하는 등 청년들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주거

충남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를 공급하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2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면제한다. 현재 첫사업으로 아산 ‘꿈비채’는 공사가 60%정도 진행되어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내년도에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지역정착을 위해 서천군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공사에 착공하였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동보육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20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청년 440명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자격조건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건물을 임대 또는 리모델링 한 후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는 청년 세어하우스를 조성하여 현재 4개 시군에 32개소를 운영 중이다.

3. 교육

맞춤형 청년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교육을 46개소에 추진 중이며, 친환경 농부 육성을 위해 151명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프로그램으로 청년학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38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합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4. 복지·문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에 매칭을 해주어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지역대학에 위탁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가를 양성을 위해 86명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 분야 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 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콘텐츠 기업 28개사가 입주 중이며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800명에게 자기계발, 문화생활, 레저시설 이용 등이 가능한 영농(Young農)바우처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5. 참여·관리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충남청년네트워크를 시군별로 총 118명을 구성하여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에는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과의 소통을 추진하였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멘토를 육성하고 청년공동체 10개 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위해 타시도 청년이 충남에 살아보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3개 시군에서 추진하였다.

또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공주, 청양 2개소가 선정되어 청년마을 조성을 시작하였다.

Ⅲ. 청년정책 발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도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청년들의 체감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공모사업 3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1. 충남청년 희망카드

19~24세 청년 약 14만 명에게 사회진입에 필요한 건강·문화·구직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희망카드를 제공하여 1인당 연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한다.

2. 청년 주거지원 확대

현재 추진중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상주택 확대(임차보증금 1억 원→1억 5천만 원) △대출한도 상향(5천만원→7천만원) △대출 이자 자부담 인하(0.5%→0.3%) △자격조건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3. 청년 공모사업

청년이 직접 관심분야의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공모를 통해 팀별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청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2023년도부터는 도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IV. 결론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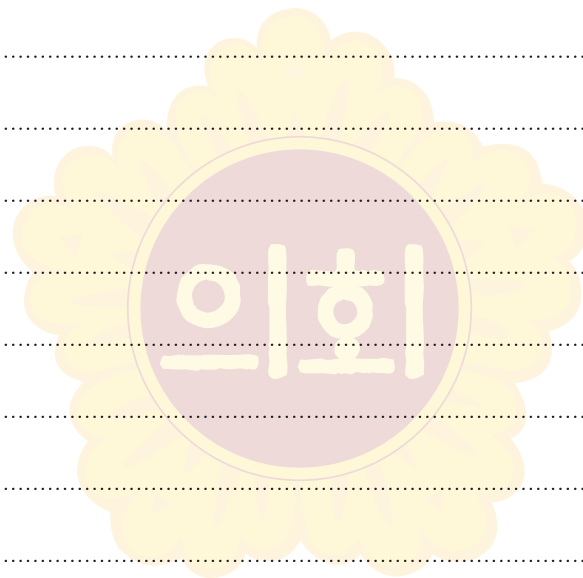
도내 청년인구는 9월 말 주민등록 기준 520,363명¹⁾으로 전체 도민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은 현재를 구성하는 주축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악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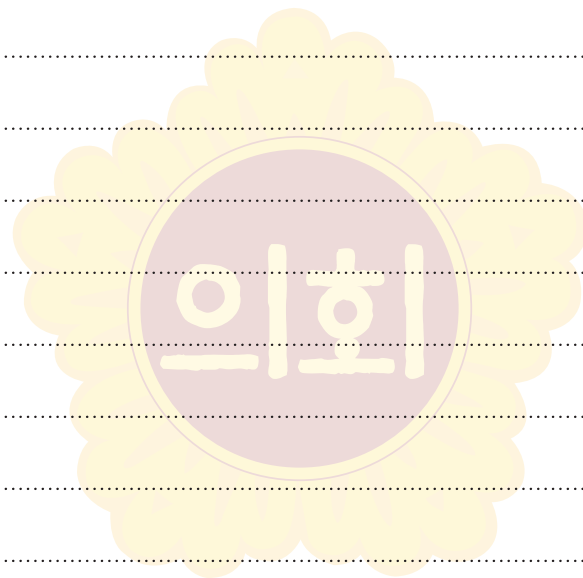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도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도 청년 기본조례 기준 19~39세 청년 수

MEMO



MEMO



MEMO

